



광주·전남의 비약적인 도약의 디딤돌이 될 2012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998년 개최 계획 수립이후 천신만고 끝에 개최권을 확보한 2012여수엑스포는 개발에서 뒤졌던 광주·전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광주·전남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줄 2012 여수엑스포 성패는 흥행과 함께 사후 활용 극대화에 달려있다. 2012 여수엑스포 준비 원년을 맞아 엑스포 선진 도시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쓰쿠바와 엑스포

산업구조 '제조업→지식기반' 변화



쓰쿠바는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일본 최대의 과학 기술 연구도시다. 쓰쿠바는 일본에 있는 100여 개의 테크노폴리스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표적 계획도시다.

일본관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생겨난 쓰쿠바는 도쿄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잘 갖춰진 전철 등 교통망과 1985년 계획된 엑스포에 힘입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쓰쿠바시의 총 면적 2만 8천500ha 가운데 연구학원도시는 2천 700ha를 차지하고, 시 전체인구 22만여 명 가운데 10만여 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 곳에는 46개의 국립연구소와 쓰쿠바대학, 200여 개의 기업연구소가 있다. 공공연구원 5천여 명을 포함한 순수 연구인력만 1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본 과학기술 연구의 메카다. 또 시 전역에는 9개의 공업단지가 들어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산업제품 생산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1985년 열린 '국제과학기술엑스포'는 쓰쿠바가 연구학원도시로 확고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 특히 쓰쿠바 엑스포를 계기로 일본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 기반 산업으로 전환했다.

'인간, 거주, 환경의 과학기술'을 주제로 열린 쓰쿠바 엑스포는

모두 2천33만여 명이 관람했다. 엑스포 개최 비용으로 1조 1천579억엔(한화 11조원)이 들어갔고 2조 3163억엔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두었다.

쓰쿠바는 엑스포 개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케임브리지과학기술단지,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와 더불어 세계적인 첨단기술과학단지로 확고한 위상을 세웠다.

쓰쿠바 엑스포가 열렸던 서부공업단지 지 세계박람회 기념조형물.

“모든 첨단기술은 쓰쿠바로 통한다”

① 과학기술의 모태 - 쓰쿠바 엑스포

쓰쿠바 엑스포는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을 일거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일본은 지난 1961년부터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계획한 쓰쿠바 과학기술도시(연구학원도시) 조성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1985년 엑스포를 개최했다. 당시 엑스포는 과학기술 진흥의 취지에 맞춰 세계 각국에서 로보트 등 최첨단

비롯해 일본 내 제약업계 3위인 '아스테라'에 어건을 생산하는 '다이진'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두뇌들이 이 곳에서 신기술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 곳에 입주해 있는 아스테라 제약 연구소 1천여명, 일본전기 연구소 250여 명 등 모두 13개 기업 연구진 수 천명이 세계 최고의 기술개발을



쓰쿠바 서부공업단지에 들어서 있는 일본전기(NEC) 연구소.

스노리 소장은 주저없이 "개최지 이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쓰쿠바 엑스포 개최 이후 연구학원도시가 정착한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의 유명 과학기술도시의 요청으로 교류가 크게 늘었다고 소개했다. 여수가 엑스포 개최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조언이다.

이어 그는 엑스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

다고 강조했다. "쓰쿠바 엑스포 개최 후 연구학원도시는 급성장했습니다. 엑스포 부지에 일본 대기업들의 연구소를 유치한 것도 과학기술 엑스포 개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쓰쿠바 엑스포는 도시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고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신기술 개발의 모태로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쓰쿠바=박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985년 엑스포 계기 대기업 유치 '급성장'

일본의 과학기술 세계 최고수준 끌어올려

기술의 성과를 선보였다.

박람회 끝난 후 23년이 흐른 쓰쿠바 엑스포 단지는 일본 우수 기업의 신기술개발 연구 보급 자리로 변신했다. 도쿄에서 특급 전철로 1시간 내에 다다를 수 있는 이바라키현 연구학원도시 내에 있는 서부공업단지가 바로 23년 전의 쓰쿠바 엑스포 개최지다.

과학기술 엑스포의 자취가 서려있는 서부공업단지에는 일본 대표기업 연구소 13개가 들어서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일본전기(NEC)를

위해 밤낮으로 지혜를 짜내고 있다. 23년 전 박람회는 끝났지만 아직도 과학기술 엑스포의 요람에서 최첨단 신기술의 싹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야스노리 하시모토(56) 쓰쿠바 엑스포관리사무소장은 "일본에서는 이바라키현 쓰쿠바시가 아니라 쓰쿠바시의 이바라키현으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일본 내에서 쓰쿠바 엑스포와 연구학원도시의 명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엑스포 성공의 관건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야



일본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던 쓰쿠바 세계박람회 개최 부지에 자리잡은 서부공업단지 전경. 글로벌기업인 일본전기(NEC)를 비롯해 13개 기업의 연구소가 들어서 있으며 새로운 입주를 위한 공사가 연중 끊이지 않고 있다.

www.kctelcom.co.kr

謹賀新年

한국전화번호부

전화정보 서비스에서 편리한 생활정보 서비스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정보 서비스까지 한발 더 나아간 새로운 개인 상담지원 정보도 보기를 위한 성정을 일축치 않겠습니다.

1년 내 무료 상담 서비스

1년 내 무료 상담 서비스

1년 내 무료 상담 서비스

2008년 1월 1일 화요일

한국전화번호부

1588-0011 / 112-1121

1588-0011 / 112-1121